주변 섬들 거느렸던 옛 영화를 꿈꾸며…

다도해의 보석 섬

⑦ 여수시 화정면 개도

탐방로를 따라 올라간 천제봉(199m)에서 내려다보이는 여수시 화정면 개도 전경. 경지정리가 된 농지를 따라 비취색 바다가 눈 앞에 펼쳐진다. 족히 4시간이 걸리는 탐방로를 따라 걷다보면 섬 주변 숨어있던 절경히 고스란히 드러난다.

한땐 대한민국 인구 1만분의 1이 살던 풍족한 섬

막걸리 전국에 명성…'관광 명품 섬' 탈바꿈 한창

여수시 화정면 개도(8.76㎢)는 고즈넉했다. 한 때 3000명이 넘게 살았다는 섬, 전복과 김 양식으로 기와로 지은 집들이 즐비하고 막걸리가 식사 때면 끊이질 않았다는 섬. 하지만 이제 '전설'로만 남아 있을 뿐이다.

5년 전만 해도 개도는 여수에서 21.5㎞ 떨어진, 섬 속의 섬이었다. 지난 2005년 백야대교(325m)가 바다를 사이에 둔 화양면 안포리와 화정면 백야리가 연결된 뒤 섬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여수시 안에 숨어 있던 섬은 백야 선착장에서 철부선으로 20분 거리에 있는 '가까운' 섬으로 다가왔고 고흥 외나로도 나로호 발사 장면 관측의 뷰 포인트로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다. 섬 활성화 방안을 찾는다며 찾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다.

개도는 여수시 출장소가 있는 화산을 중심으로 월항·신흥·여석·모전·호령 등 6개의 마을이 한 섬을 이룬다.

주위의 섬을 거느린다고 해서 개도(蓋島)로 불리지만 여수에서 보이는 섬의 형태가 개의 귀(耳)를 닮았다고 해서, 개이섬, 개도로 불린다는 어원이 전해지는 섬이다.

섬 크기로만 보면 여의도 면적(8.48㎢)보다 넓다. 차량이 없으면 섬 한바퀴를 도는데도 힘이 들고 섬 등산로를 따라 조성된 탐방로를 걸어다니는데도 3~4시간은 족히 잡아야 한다.

크기만 큰 게 아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채취와 역사도 켜켜이 쌓여 있다.

섬에 태를 묻었다는 김연수(82)씨는 "국내 인구가 3천만명인 시대, 1만분의 1이 살았던 섬"이라며 "섬 전체 집들 중 기와집이 60%를 넘었고 강아지가 기와를 물고 다닐 정도"라고 했다. 주민수 411가구 886명 수준이고 전체 주민의 58.1%(515명)가 50세 이상이어서 섬 곳곳에 휴경한 논·밭이 넘쳐나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북적댔다는 것.

김씨는 "김 한 속(김 100장)이 쌀 3~4말 가격을 웃돌던 일제시대에 주민 스스로 어업조합을 결성, 전량을 수출해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면서 섬 명칭대로 주변 섬을 거느릴 뿐만 아니라 뭍사람들조차 부러워할만한 부유함을 갖췄다"고 설명했다.

김 양식을 하다 굴 양식으로, 다시 전복 양식을 지난 1983년 국내 처음으로 시작하는 등 선진 어업을 개척해 나갔던 자존심도 셌다. 그만큼 풍족함과 여유로움 때문일까. 섬 안 화산마을 내 유일한 양조장에서 만들어진 막걸리는 주민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명성을 얻었고 입소문을 타고 여수를 넘어 전국 술꾼들에게 알려졌다. 이른바 '개도 막걸리'다.

개도 주민들에게 끼니때마다 반주로 빠지지 않았다는 막걸리는 섬 전통 문화의 한 뿌리다. 술을 한잔 걸쳐야 무르익은 얘기와 춤·노래가 흘러나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길손이 찾아오기라도 하면 취할 때까지 베푸는 게 당연했을 것이다.

김 양식으로 생활이 편해졌을때도, 굴·김·낙지·조개·바지락 등을 채취하던 2000명 주민들의 생활 터전인 마을 앞 바다(25만4200㎡)를 보상 한 푼 받지 못하고 박정희 정권에 간척지로 내준 속상함을 삭일 때도 주민들은 막걸리를 걸쳤다.

그나마 이 간척지는 바닷물이 새어나와 30년이 넘는 여지껏 쓸모없는 땅으로 전락해버렸다.

'입에 머금을 정도로 깨끗하면서도 달콤한' 막걸리 한 잔은 거친 바닷바람에 지친 몸을 따뜻하게 했고 둘째 잔에 마음도 넉넉해지기 마련이다. 주인은 세 번 바뀌었지만 오래오래 내려오는 대물림 술 맛을 잊지 못해 여전히 찾는 사람들이 많다.

화산면 개도막걸리 강태심(여·64)씨는 "자극적이지 않고 달콤하면서 톡 쏘는 듯한 맛을 접한 외지 관광객들의 인터넷 주문이 꾸준하다"고 말했다.

화려했던 역사를 뒤로하고 여태까지는 쇠퇴해 노인들만 많은 섬, 사방을 둘러봐도 빠져나갈 출구가 보이지 않는 고립된 섬으로 전락했는지 모른다.

하지만 더 이상 바다 위에 점점이 떠 있는 고독의 섬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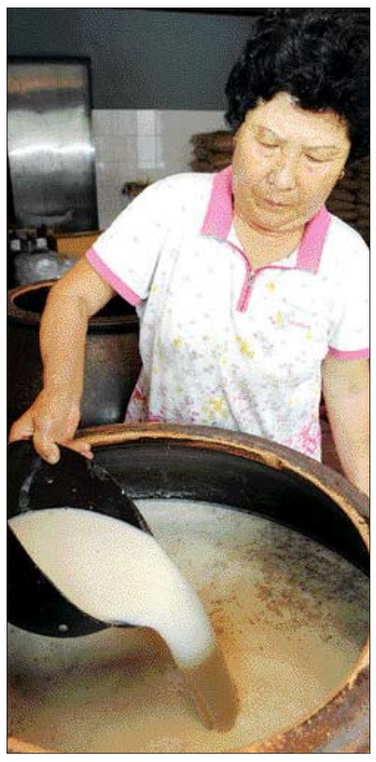
천혜의 관광 자원과 문화 유적, 전통을 밑천삼아 예전 모두가 부러워했던 화려한 섬으로 변화를 꾀하고 있다. 순수한 아름다움과 이곳 사람들의 질박한 생활, 그리고 섬 구석구석 숨겨진 볼거리를 찾아내 뭍사람들이 섬에 오고 싶게 만들 작정이다.

여수시 화정면 지상채 개도출장소장은 "개도의 막거리를 생산하는 과정을 직접 체험하는 공간을 조성하고 특산물 판매장을 마련해 '명품 섬'으로 탈바꿈하는 야심찬 계획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근에는 자연형 펜션단지(7955㎡)도 만들어진다.

섬 주변의 기암괴석과 동해안 못지않은 청석포와 모전 해수욕장의 절경, 바닷바람을 맞으며 즐기는 탐방로를 엮는 관광 상품도 뭍사람들을 불러모을 아이템이다.

바지락 캐기와 전복·가두리 양식 체험장 등 어촌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어촌체험프로그램도 마련할 계획도 세워놓고 있다.

개도가 다시 한번 사람도, 역사도, 볼거리도 많은 섬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입에 머금을 정도로 달콤하고 깨끗해 한번 맛을 본 술꾼이라면 꼭 다시 찾는다는 개도 막걸리.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